

열린 마당

세금도둑

사설

공직사회 낡은 제도·의식 타파하라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세금비리 사건으로 어수선하다. 부천사에서 나타난 세도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람이 우발적으로 세금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부정사건이다. 또 인천시에서와 달리 부천시의 경우에는 도청의 감사기관까지 이에 연루되어 있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정사건이 먹이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박멸시킬 하겠다고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일부에서는 사정작업의 한파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경색시킨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구조는 이를 시정하고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의 발전에 커다

란 장애가 되게 되어 있다. 개혁의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감사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 등 충격 조치로 일부 부문의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정과 금융실명제를 하면 큰 혼란이 온다고 하던 경제활동은 최근 7년간 가장 활발한 호황을 보이고 있고, 공무원의 복지부담 역시 개혁작업 때문이라고 보다는 우리 공직사회의 제도적 낙후성과 일부 공직자의 철학 빈곤으로 생긴 과도기적 문제로 이해한다면, 경제를 위해서도 개혁작업은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정상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의 세도사건을 통하여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면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란 무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르게 되는 것을 결정하여 주며, 의식이란 비록 불린 제도 속이라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제도 속에서도 틀리게 행동하게 하는 역할을 유도한다.

우리사회의 의식과 관행에는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첫째로, 우리 사회의 의식과 많은 부분에서 공사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흔히 관참은 자리라고 말하는 업무는 부수입이 많이 생기는 자리이다. 국민의 세금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속에 들어간다는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였다

는 사실과 감사를 많은 상급기관에서 상납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은 다같이 국가를 지키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공직을 택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로,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사회의 잘못을 보더라도 이를 못본척 하며 고발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한조직을 관리하면서도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사람 좋은 상급자가 되고 싶어 한다.

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의 뒷받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른 불교인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요소는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불자들의 목소리

무책임한 공직자 거부물

◇성열스님(강남포교위원장)=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칭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몽땅 들어먹고 가짜 영수증을 붙이는 세금도둑으로 전락했다니 국가의 기강이 의심스럽다. 부처님은 <세기경>에서 "지도자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국민은 이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만일 이러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백성들은 무책임한 지도자를 거부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금도둑은 곧 사회를 혼란시키는 도둑이다. 이러한 도둑이 성행할 때는 나라의 인위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은 국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시금 새기고 자기 반성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성열스님



◇이정웅씨



◇육문스님



◇이금현씨

공개수사로 비리 근절해야

◇이정웅(시인)=세금도둑이란 말

이 우리 사회의 유행어가 되고 있다. 도둑의 종류도 참 다양하다. 다양성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도둑의 진면목이다.

이다.

공무원이 도둑이구나. 한 나라의 행정을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처리해 나가는 공무원이 도둑이구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세금도둑질이 어디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었다. 군사정권시절에도 공공연히 거론되던 공무원 비리.

이제 공무원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가 됐다. 아니 이미 늦은 시간이다. 하루 속히 뽑아야 할 비리의 뿌리가 이번 세무공무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확실하게 뽑아야 한다. 보다 강도 높은 감사와 공개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빨리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개인적 탐욕을 앞세우는 태도. 공권이 필요이상으로 낙약한 국민정서 모두가 만들어 낸 도둑이 바로 세금도둑인 것이다.

시민들이 척결하자

◇이금현(경북불여성위원장)=국민감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내부부정권은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사과와 말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열세를 받아 국가행정을 유지하는 공무원들이, 그것도 당사자만이 아닌 부패의 사슬로 엮여있으니 이 나라가 혹시 무정부상태에 빠져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인한복구청의 비리도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졌듯이 세무비리 척결에 앞장선 공무원과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차체에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근 부패산을 취득하고 법부사 사무실이나 시·군·구청에 세금을 낸 시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도둑맞지 않았는지 담당관청에 찾아가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보기 싫다

시론

심각한 돈 중독증

부처님의 말씀 중에 증상은 사바세계에서 물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특유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원정신을 근검 절약 봉사 희생의 정신이라고 감파한 바 있다.

우리는 60~7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나아졌으나 「정신」과 「물질」의 균형을 잃어 오늘날 자본주의는 막스베버의 말과는 달리 「저질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화」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사회에 몇가지 중독증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돈의 중독증·물질의 중독증, 둘째는 이기주의의 중독증, 셋째는 SEX의 중독증등이다.

특히 이중 돈의 중독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한복구청 도세 사건 이후 정부가 더 이상의 세무부정은 없다고 확인하였지만 부천 원미구청에서 똑 같은 수법의 세금도둑 사건이 들어남에 따라 전 지방 특검에 들어갔는데 전 전 국 곳곳에서 세도(稅盜) 사건이 들어나고 있어, 전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의 세도'라는 말이 가능케 하는 데서 심각한 인사대책과 교육수련을 요하게 되는 문제다. 세무업무는 출세의식이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없는 기능직에게 맡긴 것부터가 원칙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제대로 공무원 의식을 가질 수 있었는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갖는 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승진하여 뒷자리에 오르겠다는 희망에서다.

공무원이 되선 안될 사람

그러나 그런 희망이 없다면 남는 것은 축재하여 잘 살아 보겠다는 불부적 욕망 밖에 더 있었는가? 그래서 돈의 유혹을 받게 되고 틀만 있으면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 감독의 지리에 있는 몇 사람이 관리에 헛점을 보여 빈틈을 주면 도둑질 할 수 밖에 없다. 기실 지방세의 징수업무는 국제와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두번씩만 쟁쟁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이원화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것도 한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부서가 몽땅 짜고 조직적으로 축을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인 데 그런 것이 처벌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되서는 안 될 사람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겨서 저질러진 것이다.

공무원의 자질과 직업의식에서 길을 찾아

야 한다. 현재 지방세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세정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언뜻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만 세무직에 근무하게 되어 비리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감시기능 강화하자

따라서 내무부 산하에 국제청과 같은 독립적인 지방세무청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지방세정의 문제점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일선부서에서 함께 담당하거나 분리되더라도 납세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무사를 통해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인헌 복



신철균 (옥스퍼드대학 객원교수)

구침이나 부천에서와 같은 영수증 조작에 의한 횡령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다. 국제처럼 부패는 지방 세무부서에서 회피 징수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공과금의 수납비리 예방을 위하여 세금의 수납은 은행납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세금의 납부는 항상 현금 납부를 의미하므로 세무서 등 세입 징수기관에서 현금 취급에 따른 위험을 본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셋째는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내부건제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여 하고 이러한 견제기능이 1개 과에서 보다 서로 다른 과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과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고 관련 대장을 정리하는 사람이 동일할 경우 문제의 발생 소지가 높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넷째 주기적으로 사후에 상호대조 확인업무를 통하여 2중의 방지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세무부과나 징수에 관련된 장부와 영수증을 서로 확인하고 또한 세무서장 부서의 집계액과 은행수납 집계액을 주기적으로 대조하여 단 1원의 차이도 규명하는 대조점사업부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세정의 문제점은 전산화 미비이다. 전산화는 1968년에 발족되었는데 국제 업무 전산화에 골목길 성과를 거두어 왔다. 전산화는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세금납정 때 인위적인 조작을 방지하여 부정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세정은 징수업무에만 주력할 뿐 규제 또는 심사기능을 증진시키고 있다. 날로 증대하는 지방세정 수요에 맞추기 위해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이 날로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또한 부정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지방세의 심판 기능이 조세심판소의 신설을 통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봉축

제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종사 취임 법회

그 동안 조계종의 개혁 불사에 격려와 성원을 보여 주신 전 중도 및 사부 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대화할 속에 개혁정신을 견지하여 국민 앞에 회향하는 자세로 원용 화합중단을 만드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이제 그 첫발을 내딛는 제 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종사의 취임법회와 축하 다과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전 중도와 사부대중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법회가 여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취임 법회

· 일시 : 12월 9일 오후 2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축하 다과회

· 일시 : 12월 9일 오후 6시
· 장소 : 티워 호텔 1층 켈코바 홀

불기 2538년 12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방지하 합장